

섬유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소식들 <19>

일본의 제조업들이 많이 해외로 옮기고 있다. 그럼으로써 업적이 좋아지면 “구조개혁의 성과”라고 칭찬한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고용이 그만큼 없어진 것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섬유산업이 해외로 옮겨간 것은, 일본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주의 기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본도 “H&M(HENNEX & MAURITZ)”나 “포에버 21”로부터 멋이 있으면서 값 싼 의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고용도 해주고 있다.

그래도 일본에 섬유제조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조하고 싶지 않다. 한때는 “중후장대(重厚長大 : 무겁거나 두껍거나 또는 길기만 하거나 크기만 함)” 산업이라고 하여 경멸하여 부르던 철강업계는 훌륭하게 부활하였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뒷말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스스로의 기술력과 개발력에 자신이 있으면, 결코 단념해서는 안된다.

“ ”가

“피플 트리(People Tree)”의 “사피어 미니” 대표는 “패션이란 눈으로 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꿀만한 툴(tool)로도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회사의 “페어 트렌드” 전문 브랜드는 “WGSN 글로벌 패션 어워드(Global Fashion Award) 2010”의 “최우수 서스테이너블 브랜드(Sustainable brand : 환경을 지속유지 할 수 있는 상표) & 리테일 러상”을 수상하였다. 공정한 거래와 디자인·기술연수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페어 트레이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의

수상은 과거 패션이 지구의 자원이나 생산자의 생활을 착취하여,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